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비판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진화」

하버마스(Habermas)는 현재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최근 출간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진화」(심연수 역)는 '보편적 실용학이란 무엇인가',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해' 그리고 '현대 국가의 정당화 문제' 등 모두 5편의 논문을 실고 있다. 여기서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비판하고 저자 자신의 견해를 밝힌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해'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한다.

하버마스는 사적 유물론의 기본적 가정으로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1. 토대·상부구조 이론과 2. 생산력·생산관계의 변증법(에 의한 위기발생기제)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적 유물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마르크스가 생산관계 규정의 기능을 경제적 구조에 국한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경제적 구조만이 아니며, 따라서 경제구조만을 하부구조로 보는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경제구조에 사회내의 다른 주체들이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마르크스는 진화적 학습과정을 기술적 지식의 영역에만 적용, 기술적 지식의 성장이 생산력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은 기존 생산관계와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하버마스는 기술적 지식의 성장은 체제문제의 발생을 이야기할 뿐, 진화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사회통합형태 창조에 의한 체제 문제 해결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 진화론적 학습과정은 기술적 지식의 영역 뿐만 아니라 도덕적·실천적 지식의 영역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지식의 성장만이 진화론적 혁신을 이룩할 능력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실천적 잠재력의 진화적 학습과정을

규명하는 자신의 이론이 체제문제 해결을 설명해주는 진정한 사회진화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Piaget의 도덕의식의 3단계 발전이론을 받아들여 도덕적 의식은 사회적·개인적 수준 양자에서 모두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이 하버마스의 사상이 수렴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도덕적 의식의 발달이 그의 주장대로 개인적·사회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버마스를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과제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성 또한 우리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역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다만 난해한 개념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접근이 있었으면 더욱 훌륭한 譯書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아울러 하버마스의 사회철학과 그의 논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참고로 「理性的인 사회를 향하여」(장일조 역)와 「후기자본주의 정당성 문제」(임재진 역)를 추천하고 싶다.

최광식

서강대 사회학과 대학원

한 젊은이의 좌절과 극복

크로닌의 「젊은날의 고뇌」

「젊은날의 고뇌」(김용곤 역)는 「천국의 열쇠」의 작가 크로닌의 자전적 소설이다. 원치 않는 운명의 안타까움 앞에서 심한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는 주인공 던컨 스탈링. 그의 純然 감성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용기와 노력이다.

한 젊은이가 밟아가는 사랑과 이상에의 계단에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방황과 좌절의 근원들. 그는 그 운명에 피를 흘리고 아파하지만, 스스로 그 피를 닦고 서서히 앞을 향한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우리의 인생이 가져다 주는 험난함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라는 희미한 등불을 비추어준다.

던컨 스탈링은 한 팔을 쓸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의 수재이다.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와, 막일을 하며 집안일을 꾸려나가는 어머니. 그는 자신이 진정 바라는 의사가 되기 위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된다. 불효라는 짐을 진 채.

거기에 덧붙여진 유약한 사랑. 전반에 흐르는 던컨의 외로운 여정은 그러나 휘청거리는 외로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개척자의 길을 그는 제시해 준다.

글에 나오는 선한 인물들의 정신력과는 달리, 표현상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유치함. 마치 아이들의 언어인듯한 표현들이 가끔 눈에 띄면서 우리로하여금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 어떠랴. 어린이의 유치함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듯이, 어른의 유치함 속에서도 삶의 순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느낌 하나라도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종일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독자는 잔잔히 스며드는

감동과 작은 아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들여다본 자신의 삶은 부족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돌출되기 때문이다.

던컨 스탈링의, 아니 크로닌의 젊은 날은 바로 이같은 점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젊은 시간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네 현실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이념과 욕망, 그리고 선과 악의 갈등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운명의 힘은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통제하고 있는지. 평범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우리 일상의 오류와 상황에 따른 도덕률을 가진 무질서 속에서 '올바름'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가슴과 머리에 서 조금씩 생동하고 있다.

올바름이 갖는 젊은날의 새로운 가능성은 크로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다. 던컨이 보여주는 소심함 때문에 가끔씩 답답함을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그 소심함이 바로 올바름을 향한 과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크로닌은 초기의 자연주의적인 수법을 지양하고 인물의 성격과 행동의 묘사를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독자로하여금 지루함을 겪지 않고도 끝까지 내쳐 읽을 수 있게 한다.

「젊은날의 고뇌」에서 엿보이는 멜러적 요소가 포함된 한 젊은이의 이상추구 과정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선택에 맡기고 그 선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기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크로닌은 뜻하지 않게 맞게 되는 인간의 여러 운명과 상황이 젊은이의 용기와 진실 앞에서 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김문숙

서울 강남구 방배동 822의 13호 19동 3번

쓸만한 편집자가 없을까?

고충해결

783-6051로 전화주십시오.

한사코 출판문화의 일선에서 뛰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편집아카데미'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5개월간 총 220시간에 걸쳐 실습중심의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야직은 미숙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프로근성, 신선했던 감각, 학구열 등 편집자의 기본을 갖춘 이들은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사람으로 키워보십시오.

한국편집아카데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동복BD 301호
☎ 783-6051·785-6319

김중식 中南美 여행기

마추픽추에 서다

A.5 / 375쪽 / 값 3,800원

김중식 지음

- 한국 최초의 중남미 여행기.
- 중남미 10개국의 체험기
- 중남미 이민자, 학생, 일반인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

도서 **일출**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9-1 출판 전화 735-6734

헤로도토스 歷史

국내 최초 원역판

헤로도토스 / 朴光澤 譯
번역코리아문 / 685면 / 6,000원

케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대주제로 서아시아·남유럽·북아프리카 각지의 역사, 지리, 풍습, 傳承 등을 망라한 세계 最古의 역사책. 18세기 이후 諸과학의 발달에 따라 그 정확성이 입증된 '역사'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풍부히 담고 있어 정치, 종교, 철학, 예술 등 우리 생활 각 분야에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자원의 寶庫다.

종합 **汎友社** 121서울마포구신수동 445-5 출판 전화 717-2121·2122/716-5151

동행 기획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120 서울·서대문구 미군동 142번지

3131-319